

# 우리 가족을 방주 안으로



부산 선교부장  
박 병 규

**또** 한해를 무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되  
매 이같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가슴이 벅차 오름을 느낍  
니다.

하나님은 지난해에 우리 한국 성도들에  
게 신전 건립을 허락하셨고 또한 7번째  
스테이크도 탄생케 하셨습니다. 스테이크  
수의 증가에 따라 시온의 경계는 넓혀지  
고, 신전 건립에 따라 우리 한국 성도들  
도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향유할 날이 목  
전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경하스러운 발전과 임박한 큰 축  
복에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교회의 기본 단위인 우리들 가정을 잘 준  
비시키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사악하였기 때문에 하  
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것을 계  
획하셨고,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  
에는 피신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날 우리들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함유

하고 있는 반면 불의와 죄악이 노아의 때  
처럼 만연되어 가고 있으니 실로 악의 홍  
수에 직면한 형세입니다. 이러한 홍수에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길은 우리들  
각 가정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  
씀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노아  
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되었던 것은 그  
들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때문이 아  
니고, 그들만이 그 경고에 순종하였던 때  
문이었읍니다. (벧전3:20~21) 그 가족은  
주가 "명하신 대로 준행" 하길 주저치 않  
았읍니다.

가정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리기 위  
해서 부모의 임무와 자녀들의 임무를 잠  
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관장단은  
작년도 가정의 밤 교재 메시지를 통해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으로서 또한 교회 회원으로서 우  
리의 영적인 성장은 주로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신권 소유자의 가장 중  
요한 부름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부름인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가장 신성한 위  
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위치인 것입니  
다...."

또 가족 지도서에는 부모의 임무에 대  
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가정은 교회의 기본  
적인 신권 역원이다. 그는 가족의 신권 지  
도자로서 가족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준비  
시킬 책임을 맡고 있다. 그는 가족이 하  
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도록 그  
들을 지도한다. 어머니는 자녀 출산의 특  
별한 역할과 축복을 갖고 있다. 그녀는 남  
편의 반려자이며 권고자로서 남편이 하늘  
의 율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돕  
는다. 만약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가  
족을 관리한다." 이를 요약한다면, 1)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름은 남편과 아내이며 부모가 되는 것이요, 2) 복음의 실천은 가정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3) 가정은 하늘의 율법을 가르치고 훈련할 책임이 있으며, 4) 아버지는 이를 도울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나민왕은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키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가르치며...” (모 4:15)라고 백성들을 훈계했으며, 교리와 성약 68편 28절에는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이를 수행하는 데 지체할 이유를 가진 분도 없습니다. 한 가정의 향방에 따라 수많은 자손과 조상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의 임무를 생각해 봅시다. 켈마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자기 주변부터 정리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힐라맨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하고 너희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도록 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뜻대로 하며 너희 생각하는 것도 주의 뜻을 따르게 해야 할지니, 너희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님께 돌리게 하라.”(엡 37:36) 또 힐라맨은 자기 아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아들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더욱 권고하거니와, 너희는 스스로 뽑내는 일을 삼가하여 영원하여 사라지지 아니할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일을 행하라...” 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이 두 가정들은 세상적인 재화 대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원하는 것을 행하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사

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엡 6:1~3 참조)

여러분은 학문 탐구를 비롯하여 사회 참여, 장래에 대한 준비, 친구들과의 교제 등으로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앙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부모와의 대화와 그들의 권고에 합당한 태도를 지니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을 주님의 뜻으로 가꾸는 일에 여러분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젊은 남자는 가족 활동의 참여와 가정에서의 적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학교와 기타 사회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참여를 조정해야 합니다.”라고 대관장단은 말씀하였습니다.(1981년도 가정의 밤” 메시지)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축복할 책임이 있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이 가정에서 실천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에 기꺼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안하셨으면 부모님께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개종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가정을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신전을 통해 올 수 있는 축복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홀로 방주 안에 들어가기 원할 사람은 없으며 그래서 안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비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 태국 여왕의 유타 방문



연회석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태국의 시리키티 여왕과 고든 비켄홀리 부대원장.

어느 편에서 더 큰 인상을 받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태국의 시리키티 여왕 전하가 교회를 방문한 것인지, 교회가 왕족의 방문객을 맞은 것이었는지.

여왕이 나흘간 유타를 방문한 동안, 교회 지도자들과 여왕을 만나 본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왕의 우아함과 친절한 태도에 대하여 찬탄을 금하지 못했다. 여왕도 말 일성도의 우정 어린 태도를 자주 언급했고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칭찬했다.

여왕과 네 명의 공주 중 하나인 출라혼 공주는 3주간의 미주 여행 일정중 첫 기간인 10월 25-28일에 교회의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많은 시녀와 기타 브좌관으로 구성된 수행원들이 왕족을 수행했다.

여왕과 공주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례상 누구도 왕족에 손을 내밀어서는 안되었으므로, 감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왕족의 방문객들은 교회와 정부, 사회 및 사업계의 지도자들과 그외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슴없이 손을 내밀었다.

여왕의 미국 방문 목적은 빈곤과 건강 증진을 위해 태국인들이 만든 수공예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다.

여왕은 유타 방문중에 여러 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여왕은 풍부한 유우머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었으며, 주변의 사물에 대하여 줄곧 관심을 보였다. 킴볼 자매와 인사를 나누는 여왕은 이렇게 말했다. "아, 말 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께서 병 중이

시라니 안되셨습니다.” 후에 연회석상에서, 여왕은 플로렌스 에스 자콥슨 교회 후견인에게 “당신은 태국 실크로 옷을 입어 우리에게 경의를 표해 주시는군요.”하고 말했다. 자콥슨 자매의 블라우스는 태국 실크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여왕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대관장단의 고든 비 힘클리 부대관장과 대관장단 특별 대표부의 데이비드 엠 케네디 대사가 왕족 일행을 솔트레이크시티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화환을 주었다. 여왕은 그 담례로 최근에 수술을 받고 같은 호텔에서 요양중인 킴블 대관장에게 꽃을 보냈다. 꽃에는 태국산 난초가 들어 있었다.

여왕과 공주는 처음으로 유타주를 관광하는 여행자의 역할을 쉽게 받아 들었다. 많은 비회원들은 “물몬”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곧 “태버내클 합창단, 브리감 영 대학, 오스몬드 음악 가족을 연상하게 된다. 여왕은 이미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듣고

그들을 보기를 원했다.

여왕은 프로보 오럼 지역에 있는 브리감 대학과 오스몬드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태버내클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그들 일행은 웰페어 스퀘어와 상호부조회 본부 건물을 방문했다. 왕족의 방문객들을 위해 여러 번의 환영회와 오찬회와 연회가 베풀어졌다. \*



# 서울 동 신학 연구원 태버내클 축제



동신학 연구원  
정원에 차려 놓은  
음식 바자회.



학술제에 모인 학생 회의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동 신학 연구원 학생회가 주최한 태버내클 축제가 동 신학 연구원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16일에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호남 교회 교육 기구 대표와 서 회철 원장, 그리고 귀환 선교사들의 말씀을 들었으며, 강당에서는 학술제가 베풀어졌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조 만구 교수의 주제 발표와 이 호남 교육기구 대표의 "한국의 물론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이어서 17일에는 축제가 절정을 이루어 탁구 대회와 각종 오락이 활동실에서 진행되었고 각종 음식 잔치가 베풀어졌다.

학생들 삼행시 발표회, 음악제, 80여 쌍이나 참가한 무도회에 참여하여 재능을 발표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축제를 위하여 학생 회장인 한은수 형제와 임원들이 수고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

# 합창 경연 대회 서울 스테이크

지난 1981년 10월 2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 스테이크 제 4 와드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산하 와드/지부 회원들의 합창 경연 대회가 있었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와드/지부 회원들이 모든 모임에서 찬송가를 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81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의 합창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거의 모든 와드나 지부가 참여하여 열창한 결과 서울 선교부에서 서울 스테이크 산하로 들어 오게 된 반포 지부가 특상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일반 성인, 독신 성인, 그리고 아픈 신권 및 청년회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와드/지부의 힘을 과시한 것이었다. \*

# 서울 스테이크 로드 쇼 경연 대회

서울 스테이크는 지난 1981년 11월 14일 오후 6시부터 제 4 와드에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 주최로 로드 쇼 경연 대회를 열었다. 스테이크 산하 10개의 와드/지부가 참가하여 열연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금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발표한 영동 와드가 차지하였고 은상은 반포 지부와 8와드가 공동 수상하였다. 연구 공연은 장내를 꽉 메운 관중들의 환호 속에 3시간 40여 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날 심사 기준은 주제, 내용, 시간, 분장 그리고 연기력 등에 중점을 두었다. 심사평을 맡은 박 중식 고등 평의원은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와드/지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다음 기회에는 좀더 알찬 주제와 내용으로 기량을 겨룰 것을 말씀하였다. 참석 인원 약 300명. \*

## 신학 연구원 동문회 정기 총회

한국 신학 연구원 동문회 제 4 차 정기 총회가 지난 1981년 10월 23일 오후 7시 부터 제 2 와드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이 호남 교회 교육 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말씀하였고 환영 모임을 겸하였다. 회칙 통과, 경과 보고, 회계 보고가 있었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교 후원부, 총무부, 의전부, 활동부, 재정부, 사회 사업부, 그리고 홍보부를 새로 조직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두었고 소신과 아울러 사업 계획을 들었다.

특히 선교 담당 허 채 감독은 지금까지 7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들 중에서 3명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지방에서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 조 규영 회장이 유임되었으며 허 채 부회장과 김 정숙 부회장 그리고 서기에 문 인숙 자매가 결정되었다. 동문회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조 규영 회장에게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연락처 (전화 363-7577) 참석 인원 약 120명. \*



## 서울 북 스테이크 알뜰 바자회



임장 메이프를 끊는 신원(의전장)과 상호부조회장(중앙).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지난 1981년 10월 24일 녹번 와드에서 추계 알뜰 바자회를 열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가진 이날 모임에서 제 1부에서는 홍 무광 스테이크 부장과 김 정숙 상호부조회 회장이 말씀했고, 제 2부에서는 회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수예품, 완구, 액자, 매듭, 바구니, 의류 및 테라리움 등이 선을 보였고 비축 식품으로는 쟀 종류, 김, 미역, 참기름, 갯잎, 오이지, 통조림, 젓갈 등이 출품되었다. 이번 바자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정성들여 만든 물건들을 값싸게 서로 나누어 쓰자는 사랑의 모임이었다. \*

## 서울 서 신학 연구원 태버나클 축제

10월 29일, 신촌에 위치한 서 신학 연구원에서는 개교 제 9주년 기념 태버나클 축제를 열었다. 재학생과 동문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축제에서는 낮에는 체육대회 그리고 저녁에는 학술제를 개최하였고, 30일 저녁에는 무려 150여 명이나 참여한 무도회를 가졌다. 체육 대회에서는 탁구, 테니스, 발아구, 배구 등으로 서로의 기량을 다투었고, 학술제의 심포지움에서는 "물문의 사회 참여"라는 주제로 이 도환 원장과 김 중열 교수 그리고 김 창목 교수가 말씀하였다.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즐겁게 만든 무도회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축제 기간 중에는 특별히 여학생들이 바자회와 전시회를 주최하여 손수 만든 작품을 내놓아 솜씨를 자랑하였다. \*



## 팔머 전 서울 선교부장 내한 특별 노년의 모임



말씀하는 팔머 전 선교부장.



지난 1981년 11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스테이크 제 4 와드에서 서울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 노년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지역 대표이신 한 인상 장로가 감리하였으며 이 호남 장로를 비롯하여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구도자들도 참석하였다. 팔머 장로는 우리나라 제 2대 선교부장을 역임했으며 재임 기간 중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한국 정부와 학계 등 다방면에 걸쳐 소개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구도자를 개종시켰으며 그의 웅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케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날 팔머 장로는 말씀하는 가운데, 회복된 복음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간증하였고 한국에서 말일 성도들의 책임이 크음을 강조하였다. 참석 인원 약 700명. \*

## 한국 물몬 합창단 제2회 정기 공연 성료

한국 물몬 합창단은 지난 1981년 11월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유 관순 기념관에서 제2회 정기 공연을 가졌다. 서울지역의 성도들과 재한 외국인, 그리고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관람한 이번 공연은 회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1981년 3월 28일 제1회 정기 공연을 마친 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한 합창단원들은 이날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여 청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수고한 한국 물몬 합창단의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장 : 홍 무광 북 스테이크 부장, 총무 : 허 병석 형제, 부총무 : 정 문영 형제, 서기 : 김 영옥 · 한 경자 자매, 지휘자 : 김 남희 형제, 부지휘자 : 양경신 자매, 허충석 형제, 반주자 : 이 회경 자매, 무대 연출 : 김 균 형제, 소프라노 : 31명, 엘토 : 27명, 테너 : 15명, 베이스 : 16명.

한국 물몬 합창단은 많은 신권 역원들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물몬 합창단에서는 제3기 합창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다. \*

### 제3기 한국 물몬 합창단원 모집 안내

#### 1. 응모 자격

- ◇만 18세 이상의 회원으로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자.
- ◇와드/지부의 감독/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 모집 인원

○ ○ 명

#### 3. 원서 배부 및 전형 방법 · 일자

- ◇원서 배부 및 접수 : 1981. 11. 29 ~ 1982. 1. 10. 각 스테이크 사무실
- ◇전형일시 · 장 소 : 1982. 1. 23. 제2와드
- ◇전 형 방 법 : 본인이 원하는 성곡이나 가곡 중 택일(전조 가능, 악보 지참)
- ◇합 격 자 발 표 : 개별 통지.

#### 4. 특기 사항

- ◇본 합창단은 한국의 말일성도의 뜨거운 성원하에 발족한 합창단으로 서울 신전 헌납식 참가 및 정기 공연 외에도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앙 발전과 정서적 소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확신합니다.